

# 재일 한국인의 삶

—金吉浩의 작품세계—

김영화\*

## 차례

1. 머리말
2. 「靈歌」
3. 「해빙」
4. 「나가시마 아리랑」
5. 「이쿠노 아리랑」
6. 맺음말

## 1. 머리말

김길호(1949~ )는 제주시 삼양동에서 출생하여 제주도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1973년 일본에 건너갔다. 1973년이면 그의 나이 24세가 된다. 24세까지 제주도에 살았다면 일본에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의식과 정서를 지니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건너가 있는 1979년 11월 《현대문학》에 「汚染地帶」가 추천된 바 있다. 그 후 1980년 大阪文學學校에서 문학공부를 하는 등 계속 문학수업을 하다가 1987년 8월 《문학정신》에 「靈歌」를 통해 문단에 등단했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로 작품을 쓰고 그것을 한국의 잡지 등에 발표하는 특이한 작가다.

필자가 그의 작품을 읽은 것은 다음과 같다.

- 「靈歌」(《문학정신》, 1987년 8월호: 『제주문학전집』 4, 1997년 10월 수록)
- 「해빙」(『제주문학전집』 4)
- 「가마귀 모른 祭祀」(『제주문학전집』 4)
- 「나가시마 아리랑」(《제주문학》 37집, 2002년 12월)
- 「이쿠노 아리랑」(《월간문학》 415호, 2003년 9월)
- 「몬니쵸」(《제주문학》 39집, 2003년 12월)

김길호는 이들 작품 외에도 더 작품을 발표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입수할 수 있는 작품들은 이상과 같다.

필자가 읽은 6편의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재일 한국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일 제주인의 삶이 드러난 작품이 있어서 흥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보고 들었던 재일 한국인들의 삶을 소설을 통해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梁石日, 李良枝 등과 다르게 한국에서 태어나 성년이 된 후에 일본에 건너가 재일 한국인의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질게 드러나 있어 또 다른 흥미를 준다.

이 글은 그의 작품 가운데 몇 작품을 골라 가볍게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靈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설이다. 죽은 후에 토장(土葬)을 할 것인가,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토장을 하고 묘지를 조성하

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묘지를 쓸 토지 문제, 그리고 묘지 관리와 벌초 문제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것 같다. 지금 한반도, 특히 제주도는 온산야가 묘지로 채워져 있다. 묘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재일 동포 1세인 할머니가 할아버지 유골을 고향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하고 자기도 죽으면 고향 땅에 묻고 싶어한다. 그러나 재일 동포 2세인 아들 부부는 그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재일 1세와 2세가 갈등을 일으킨다.

어머님, 어머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어머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을 고향으로 모시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는 어머님도 고향으로 모셔야 합니다. 저나 집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우리 둘이 죽고 나면 그 때 저 애(손자=필자 주) 혼자밖에 없는데 그때가 곤란합니다. 저 애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2세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재일 동포 가운데는 묘지 관리와 벌초 문제로 조상의 무덤을 파고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양지공원)에 모시는 사람까지 있다. 한국말도 모르고 친척들과 교류도 없는 재일 3세인 손자가 묘지를 관리할 수는 없다. 나이가 많은 동포 가운데는 고향의 친척들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옛날 일이다. 고향의 친척들도 벌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고향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든 문제인데 고향을 떠나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묘지를 조성할 땅이 없다. 불가피하게 화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

이 소설은 재일 동포 1세와 2세 사이의 갈등을 손자가 할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이다. 이 소설이 1987년에 발표되었으니까 모르겠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도 이런 결말을 맺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고향에 있는 사람의 의식이나 정서가 제일 동포들의 의식과 정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한국에서도 토장이나, 화장이나 하는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3. 「해빙」

「해빙」의 주인공 니시무라(박민식)는 48세의 사업가다. 아버지가 물려준 뼈정꼬 사업을 계속하며 안온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와 화합하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느꼈다.

주위에서 조롱받는 아버지가 미웠고 그러한 아버지를 경멸했던 자신이 증오스러워서 대학 생활 때부터 집을 멀리했던 니시무라였다.

굶어 죽을 순 없다는 아버지의 집념은 개처럼 사회의 밑바닥을 훑고 다녔다. 조롱과 손가락질에는 귀와 눈을 막았다. 부끄럽다거나 아니꼽다는 조건 반사의 생활감각은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었으며 숫제 태어날 때부터 버리고 나온 사람 같았다.

‘가족들까지 싫다는 어느 문둥병 환자의 시체를 내가 화장시키고 묻어줄 때에도 나는 살아가는 보람을 느꼈지. 물론 그들은 조센징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지’(중략)

어느 날 독백처럼 중얼거리던 아버지의 말이었고 그의 상징적인 철학이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억척스러움은 이 시에서 가장 큰 뼈정꼬 가게를 가질 수 있는 에너기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옷부터가 그랬다. 관혼상제를 제외하고는 일년 열두 달 허름한 작업복과 낡아빠진 중절모를 벗어본 적이 없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그것을 버릴려다가 발각이 되어 죽도록 맞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지독한 조센징이라고 불렀다.

이런 아버지를 니시무라는 무척 싫어했고 부끄러워했다. 니시무라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아버지를 멀리했고 일본인들과 어울려 지냈다. 굳이 조센징이라고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빠짱꼬 가게를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지냈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나까야마가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선거운동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왔다. 그러면서 일본인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런데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 아들 히데오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야구 경기에 우승하고 그 시를 대표해서 다음 단계의 경기에 나가게 되었다. 히데오의 학교가 우승하게 된 데는 투수인 히데오의 힘이 컸다. 히데오 가족은 물론 시장선거에 나선 히데오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형 회장인 나까야마도 기뻐했다.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에 이긴 히데오는 다음 경기 때부터는 일본 이름을 버리고 본명으로 선수 등록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한 나까야마는 니시무라를 찾아 와 아들을 설득해 달라고 한다.

니시무라는 난처했다. 친구의 요청대로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아들은 초등학교 때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본명을 쓰겠다고 고집했다.

“초등학교 때 나고야(名古屋)로 전학갔을 때입니다. 같은 반에 동포 아이가 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국에 갔다 와서 작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갔다 왔다는 작문을 쓴 것이 발단이 되어서 반 아이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 조선에 갔다 와서 외국에 갔다 왔다고 썼다면서 그 연쇄작용은 다른 동포 아이들에게 미쳤습니다. 나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학을 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조선인이라고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일본 아이라는 행세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멸시하고 조롱을 하였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한없이 미워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 자신은 더욱 저주스러웠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의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선수 등록을 본명으로 하겠습니다.

니시무라는 아들인 히데오의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는 갈등을 느끼다가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고 시청에 가서 일본 이름 대신 한국 이름으로 등록증을 고쳤다. 그리고 지문을 찍으라는 것도 거절했다. 그것이 동포 사회의 운동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니시무라에서 박민식이 된 그는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소설은 대다수 제일 한국인(조선인)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시마 아리랑」

이 소설에는 제주도 출신 양준명의 가족사가 소개된다. 그는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아내와 함께 일본에 건너갔다. 그러나 그가 왜, 언제 일본에 건너갔는지는 분명치 않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에 살 때 그는 나병에 걸려 가족들은 물론 사람들로 부터 격리된다. 뒤에 남은 그의 아내와 외동딸은 일본의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우베시에 정착한다. 그리고 일본에 귀화한다. 그런 가운데 외동딸은 성장해서 일본인인 미조구치와 결혼하여 딸을 하나 두었다. 사위인 미조구치는 처가가 귀화한 일본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 그것도 석연치 않는데 장인의 행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묻다가 나병에 걸려 나환자촌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처와 어린 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양준명의 외손녀인 미조구치가 성장해서 의사가 된 것도 그 어머니가 딸을 힘을 들여 의학공부를 시킨 결과였다. 의사가 된 미조구치는 자기의 가족사를 알게 되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보낸다. 그녀가 털어놓는 다음 인용문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어머니는 가게문을 닫고 살림을 정리해서 우베를 떠나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입퇴원을 되풀이 하다가 삼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머니는 우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며 한국인이었지만 귀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외할아버지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일본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라면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 살 때 오사카시 니시나리쿠(西成區)에서 헤어졌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일본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우베시에 정착했으며 그 때 일본인인 저희 아버지와 결혼했었는데 어머니가 귀화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 때문에 가정 싸움이 계속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북송됐다고 말했었는데 그 과정이 말할 때마다 달라서 아버지는 계속 추궁했었다고 합니다. 그 때 처음으로 어머니도 외할아버지가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질려서 이혼 수속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치듯 우리들 곁을 떠났다는 데 제가 세 살 때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사를 알게 된 양준명의 외손녀인 미조구치는 나병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된다. 그러면서 외할아버지(양준명)을 찾는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망신고 수속을 마치고 호적등본을 근거로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의 양준명이라는 것, 본적이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이라는 것, 외할머니는 김춘월, 어머니는 양순자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것을 계기로 외할아버지 찾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환자촌에 있으면서 이름을 스미야마(濟山)—제주도의 '濟'와 한라산의 '山'을 합쳐 지었다는 새로운 성을 가진 외할아버지를 찾게 된다. 그녀는 더욱더 나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환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그녀는 민족적 성향이 강하고 나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고성만을 만나 자기의 가족사를 고백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고향인 제주도에 모시고 가려고 한다. 처음에 외할아버지는 찬성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미조구치가 외손녀라는 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외손녀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외손녀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외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일본 절에 안치되어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해를 분골해 가지고 고향의 바닷가에 뿌리고 싶다고 해서 겨우 승낙을 얻는다. 그래서 제주도가 고향인 고성만에게 안내를 부탁한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양준명의 가족사와 일본에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조센징이라는 차별에다 나병환자라는 서러움이 겹쳐 이름을 자주 바꾸면서 살아가는 독특한 재일 제주인을 만난다. 이 소설은 그것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 가운데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의사인 미조구치라는 독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이쿠노 아리랑」

이 소설은 4·3 사건 때 일본으로 피신한 한 여인의 생애를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고 할머니는 70대의 노인이다. 일본의 오사카 이쿠노에서 식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

그녀가 4·3 사건 때 일본에 피신한 것은 자의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좌익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고향에 있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라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린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일본으로 피신한 것이다.

그녀는 일본에서 고향의 아들 생각으로 잠못 이루는 일이 많았고, 그것을 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한 살배기 아들 생각, 산으로 피하다 죽었다는 남편 시체는 고사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도망을 친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열심히 여섯 달 동안 이쿠노에서 일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쿠노에서도 제주도와는 완전히 두절되어 고향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제주도 해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에켄(三縣) 도바(鳥羽)에 가서 물질하면서 살았다. 그녀는 고향에서 물질한 경험은 없었지



만 친정이 무근성이어서 물질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툴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작업을 할 때는 고향도 아들 생각도 잠시 잊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이 소설의 주인공=필자)는 제주에서 물질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제주시 무근성에 살면서 해녀로 생계를 끌어 왔다고 했다. 아버지는 낚싯배 두 척 가진 어부였지만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밤낚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학교를 그만뒀야 했고 어머니는 물질을 해야 했다. 할머니는 남동생을 돌보면서 어머니의 물질과 몇 마지기 있는 밭의 일을 거들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제주 해녀들이 있고 벌이도 괜찮다기에 그곳에 가는 제주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아들 명훈의 소식도 들었다. 시어머니가 삼양에서 데리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인편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의 편지를 함께 받았다. 그것은 이제 고향에 돌아 올 수 없으니 재혼하라는 것이었다. 6·25가 일어나 나라가 어지럽고 귀국하는 것도 힘들지만 귀국하더라도 밀항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심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귀국할 생각을 버리고 재혼해서 일본에 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집 식구들의 배려이기도 했다. 아들인 명훈이는 잘 키우겠다는 것도 덧붙였다.

뒤 급해서 하던 일 모두 팽개치고 변소 가는 것처럼 일본에 나왔었는데 오면 안 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빨리 돌아가서 피붙이 때 헤어진 아들 명훈이도 키우고 살림도 챙겨야 하는데 일본에서 재혼하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집 가족들의 마음이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감당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죽어도 제주에서 죽어야 했는데 얼마나 일본에 온 것을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물질하러 가서 해지는 저녁노을 속에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노라면 그렇게 고향이 그립고 보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제주에서 물질하러 바다에 간 어머니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라 목청껏 어머니를 부르다 보면 이제 여섯 살 난 명훈이가 삼양 바다에서 그렇게 나를 부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다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 각오하고 자수해서 한국에 돌아갈까 그러다가  
도 저 때문에 가족들의 피해를 입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귀국을 포기하고 경상도 출신의 남자와 재혼했다. 아  
들도 하나 두었다. 그러나 남편은 노동판에서 일하다 산이 무너지는 바람  
에 생매장당해서 죽고 말았다.

그녀는 다시 이쿠노에 돌아와 김치 가게를 시작하다가 2차 대전 때 상  
처를 입은 일본인을 만나 또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 그러면서 이  
쿠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  
어서 고향에 송금도 하고 아들들도 대학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큰아들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하고, 둘째아들은 북한으로 가 버렸다.

이 소설은 4·3 사건의 비극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룬 소설이다. 고향  
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다룬 소설은 많지만 4·3 사건 때 일본으로 밀항해  
서 피신했던 일을 다룬 소설은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이 작가가 일본에 건  
너가서 제일 동포들의 삶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을 것이다.

## 6. 맺음말

金吉浩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작가다. 24세에 일본에 건너가 계속 일  
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일 동포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  
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일본에서 지켜본 제일 동포들의 삶을 그리는 것  
이 주류를 이룬다.

제일 동포들의 삶을 그린 소설들은 많다. 제주도 출신의 작가들만 하더  
라도 金泰生, 金石範, 梁石日, 李良枝 등이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일본에  
건너갔거나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것에 비하면 김길호는 성년이

된 후에 일본에 건너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는 재일 동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드러난다.

재일 동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일본인의 시각도 있고(小田 實), 재일 2세의 경우도 있다(梁石日, 李良枝). 그러나 성년이 된 후에 일본에 건너가 재일 동포의 삶을 그려내는 작가는 김길호가 유일한 작가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그의 소설을 읽으면 한국의 작가가 재일 동포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것을 소설로 그려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친근감이 있다. 더구나 그는 한국어로 작품을 써서 한국의 잡지 등에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재일 동포들—특히 재일 제주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도 자주 듣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소설로 형상화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 점에서 김길호의 작업은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